

이란 반히잡 시위에 대한 반인도적 활동에 반대하는 성명

9월 13일, 이란에 있는 22세의 쿠르드 여성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혐의로 이란의 "도덕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3일뒤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이란의 반정부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보안군의 폭력적인 대응으로 인해, 시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구금되었으며 7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과학자로서 성별이나 문화의 차이와 상관없이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수많은 협력 연구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KAIST는 이란에서 진행 중인 시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결사 등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그들의 인권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현재 시위로 인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제50대 KAIST 대학원총학생회 B-Side, KAIST 총학생회 인권센터, KAIST 포용성위원회는 해당 사건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권 탄압과 폭력적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영원하는 이란인, 무슬림, 그리고 모든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이며 유혈 사태를 막고 인도적 위기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50대 KAIST 대학원 총학생회 B-Side

KAIST 대학원생 인권센터

KAIST 포용성위원회